

곤충탐험 하고 VR 야구게임 즐기고

국립광주과학관 '과학의 달'은 가족 즐기는 2가지 기획전 5월 26일까지 곤충특별전 19~21일 VR·AR 특별전 열어



'과학의 달' VR·AR 특별전에서 진행되는 담양 죽녹원 배경 '심리치유 VR콘텐츠' 체험. <한국기상중강원실산업협회 제공>

국립광주과학관(북구 오룡동)이 '과학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가지 기획전을 마련했다.

먼저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19 곤충특별전:곤충탐험, 그 신비함 속으로!'가 과학관 기획전시실 2에서 열린다.

곤충특별전은 국내외 다양한 곤충표본을 선보이는 곤충표본존과 살아있는 곤충을 관찰하고 오감체험하는 곤충체험존을 운영한다. 체험존에서는 장수풍뎡이·꽃무지·거저리·쌍별귀뚜라미 등 살아있는 곤충을 관찰할 수 있다. 곤충모형 만들기, 현미경 관찰, 곤충스캐너(세밀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고 라이브러리 & 갤러리는 미니 북카페와 생태사진전, 포토존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전시가 개막하는 18일에는 기념 행사로 장수풍뎡이 애벌레 분양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21일에는 국립광주과학관에 곤충표본을 기증한 김원기(전 생물방제연구원 곤충바이오센터 연구원)씨를 초청해 '필 사이언스' 강연을 개최한다. 김씨는 곤충연구의 가치와 채집할 때의 주의할 점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야외전시장에서 개최하는 필 사이언스 강연은 이날 오후 2시와 3시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관람료 1000원.

'과학의 달' VR·AR 특별전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기획전시실 1에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광주과학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기상중강원실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는 8개 업체가 참가

해 23개 부스를 운영한다. 'VR특별전'은 과학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에듀존'과 VR·AR 기술과 관련한 기술동향 및 정부정책 등을 보여주는 '산업존', 관람객이 직접 VR콘텐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엔터존'으로 나뉜다.

산업존에서는 담양 죽녹원을 배경으로 하는 '심리치유 VR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엔터존에서는 탐승형 모션 시뮬레이터인 '정글에서 살아남기', 'VR 야구게임' 등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VR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광주에서 첫선을 보이는 이번 기획전은 앞으로 과천, 중앙(대전), 대구, 부산과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62-960-61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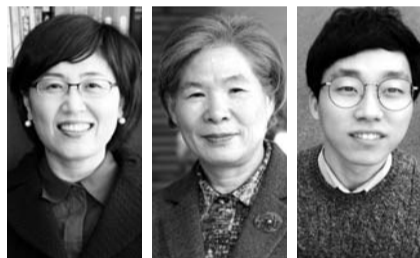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화로 보는 과학 읽기' '수학 더놓고 얘기하기' '화학이 만들어 내는 빛' 광주과학관 다양한 강의

다양한 주제로 과학을 다루는 강연이 잇따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다.

다음 달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과학관 상상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에는 국립광주과학관 인직원들이 연사로 나선다.

먼저 지난 13일 김현승 박사(선임연구원)의 '과학을 아십니까?'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조숙경 박사(책임연구원)가 '영화로 보는 과학 읽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 27일에는 김선아



조숙경 박사 김선아 관장 허상욱 연구원

광주과학관 관장이 '수학 더놓고 얘기하기'로 참가자를 만난다. 김 관장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한 뒤 동대학원에서 대수학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5월4일 허상욱 연구원의 '화학이 만들어 내는 빛'으로 강연을 마무리한다. 참가비 무료.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명호 교수, 과학기술한림원 호남제주 교류회 회장 선출

정명호(61·사진)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호남제주 교류회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4월부터 4년 간이다.

한림원 호남제주 교류회는 최근 제주도 시리우스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현 문승현 회장(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후임으로 정명호 교수를 선출했다.

최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신입 회장으

로 선출된 정 교수는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장·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한국혈전지혈학회 등을 지냈다. 지난 3월 지역의 과대학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한림원 의학부장에 임명됐으며, 논문 1548편·특허68건·저서 78편 등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과학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



활용해 정책자문 등을 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됐다. 과학·기술 석학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정회원을 선발하며 정책학부·이학부·공학부·농수산학부·의약학부 등 5개 학부에 400여 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 한림원 호남제주 교류회에는 중신회원 8명·

정회원 21명·준회원 1명·Y-KAST 회원 1명 등 총 회원 3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에서는 국영중·박상철 중신회원과 김운수·정명호·안영근 교수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한림원 의학학부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한림원 본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심화교육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4·25일 전남농업기술원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오는 24일부터 이틀 간 나주시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심화교육'을 연다.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교육은 1인 미디어 제작과 라이브방송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 방안 등을 다룬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센터에서 협약을 열고 농업인의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와 미디어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인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농작물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영상제작 및 1인 미디어 활용 교육 ▲농촌 미디어 향유권 확산을 위한 농업인 미디어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물을 주제로 한 실시간 라이브방송으로 경합을 펼치는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경연대회'가 오는 6월에 개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4월11일)을 맞아 기념우표(사진) 총 62만4000장을 최근 발행했다.

우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의 역사적 장면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문구를 함께 담았다. 1919년 3·1운동 직후인 4월11일 독립운동가 29인은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모여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편요금 5월1일부터 50원 오른다

우정사업본부 행정예고 330원 규격 요금 380원으로

우편요금이 오는 5월1일부터 50원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5월1일부터 현재 330원(25g이하 기준)인 규격 우편물 요금은 380원으로 50원 인상된다. 요금이 가장 낮은 규격 우편물 5g이하의 300원에서 350원으로, 25g이하의 330원에서 380원으로, 50g 이하의 350원에

서 400원 등 증량별 50원이 인상된다. 우편요금 인상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면서 "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 불가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편물량은 전자고지서·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2002년 55억통 ▲2012년 46억통 ▲2015년 40억통 ▲2018년 36억통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